

## 부모의 자녀가치와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커플관계 자료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김정민, 한정원\*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 The Actor Effect and the Partner Effect of Value of Children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in Childhood: Analysis of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ung Min Kim, Jeong Won Han\*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자녀가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태도 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한 후,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의 상호작용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2013년)의 1,542쌍의 자료를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녀가치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태도는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자녀가치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자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부모의 자녀가치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다수의 변수들이 자기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낮추는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커플 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APIM 분석 방법에 기초하여 부모의 자녀가치, 양육 스트레스, 양육 태도간의 관련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dyadic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nd fathers in their value of the child,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After providing the basic data to understand the parental interaction patterns of parenting attitudes. A total of 1,542 couples from the 6th year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were included and analyzed using SPSS 18.0, AMOS 18.0. Thus, the value of the child was higher in fathers than in mothers; however,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were higher in mothers than in father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value of child,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Moreover, the parents' value of the child shows an actor effect in parenting stress. Moreover, the value of the child and parenting stress show actor effect in parenting attitude. In this study, many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only an actor effect; however, the parenting stress of the mother was found to have a partner effect of lowering the parenting attitude of the father.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confirms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lue of child,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based on the APIM analysis method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couple data.

**Keywords** : Attitude, Child, Parenting, Stress, Value

## 1. 서론

아동이 태어나서 사회적 관계를 처음 갖게 되는 곳은 가정으로, 아동은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오랜 시간동안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고, 아동의 성장과정 속

### 1.1 연구의 필요성

\*Corresponding Author : Jeong Won Han(Kosin Univ.)

Tel: +82-51-990-2384 email: hjw0721@kosin.ac.kr

Received November 7, 2016

Revised (1st November 25, 2016, 2nd December 7, 2016)

Accepted December 8, 2016

Published December 31, 2016

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인격 형성과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1].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성 및 도덕성 발달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부모의 온화하고 지지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생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 그러나 현대사회는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대부분의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책임져야 하고, 바쁜 사회생활로 인하여 부모들은 자녀들과의 접촉의 시간이 감소하면서 올바른 양육 태도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며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과적으로 부모들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3].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태를 말하며, 걱정과 같이 순간적인 감정이 아닌 지속적으로 누적된 형태의 스트레스를 의미한다[4]. 과거에는 양육 스트레스의 주요 관심 대상이 어머니였지만, 현대사회는 기혼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 역할 분담이 모호해 지고, 공동육아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아버지들도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 모두에게 중요시 되고 있다[5]. 부모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으면 아동에 대해 가혹하고 처벌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온화함이 부족하게 되고, 아동의 일상생활을 방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강압적이고 부정적 양육태도를 빈번하게 표출할 위험성이 높은 반면, 부모가 양육 스트레스의 정도가 낮으면 아동에 대한 양육태도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6]. 부모의 양육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7-9]에서도 부모가 아동에 대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아동은 불안정한 정서를 보이고 문제행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모가 온정적 양육태도를 유지하는 아동은 생활만족도가 높고, 학교와 동료들 사이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특히 유아의 경우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기질 및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데,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가치는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동기가 반영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조

절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10]. 부모의 자녀가치는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등의 부모 역할 수행의 동기 또는 부모 됨의 태도를 포함하고 있어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어떠한 가치를 갖는가에 따라 양육태도는 결정되게 된다[11]. 또한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가치가 긍정적일수록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이 증가하게 되지만,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가치가 부정적일수록 부모들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는데[12-14], 이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들[15,16]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결국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가치가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러한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간호학 분야는 아동의 건강 및 양육과 관련하여 실무 지식과 기술을 다루고 있고, 지역사회와 임상 현장에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중요하다[17].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양육 스트레스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점이 있고, 이와 관련된 간호학 분야에서의 연구들도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아동의 양육은 부모의 상호작용과 연관되어 있는 과정으로, 부모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유의미한 사람이자, 양방향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분석할 때 짝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18],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자녀가치와 양육 스트레스가 부부 간의 양육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도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근거로 하여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가치, 양육 스트레스, 양육태도가 서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의 상호작용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19].

##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2013) 6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자녀가치, 양육 스트레스, 양육태도 간

의 관계에서 부모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한다.
- 2) 대상자들의 자녀가치, 양육 스트레스, 양육 태도의 정도와 차이를 확인한다.
- 3) 대상자들의 자녀가치, 양육 스트레스, 양육 태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4) 대상자들의 자녀가치와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한다.
- 5) 대상자의 자녀가치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확인한다.

## 2. 본론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조사 6차년도(2013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커플관계자료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부모의 자녀가치, 양육 스트레스, 양육태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인과관계 연구이다 [Figure 1].

### 2.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2013) 6차 년도의 본조사와 어머니, 아버지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총 1542쌍의 부모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경로분석에서 표본 수는 최소 200명 이상이 적합하므로[20], 본 연구에서 1542쌍의 부모는 경로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표본 수로 확인되었다.

###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들은 한국아동패널(2013) 6차 년도 조사에서 측정된 항목들의 일부로 이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선정하였다.

#### 2.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어머니, 아버지 설문지에 공통으로 구성된 나이, 교육수준, 직업, 아동의 성별, 아동의 연령, 결혼유지 기간을 선정하였다.

#### 2.3.2 자녀가치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자녀가치는 이삼식 등[21]이 개발한 부모의 자녀가치관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삼식 등[21]의 연구에서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는 Likert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를 갖거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삼식 등[2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7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78$  (어머니)과 Cronbach's  $\alpha = 0.77$ (아버지)로 나타났다.

#### 2.3.3 양육 스트레스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22]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일부인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발체하여 측정하였다. 총 11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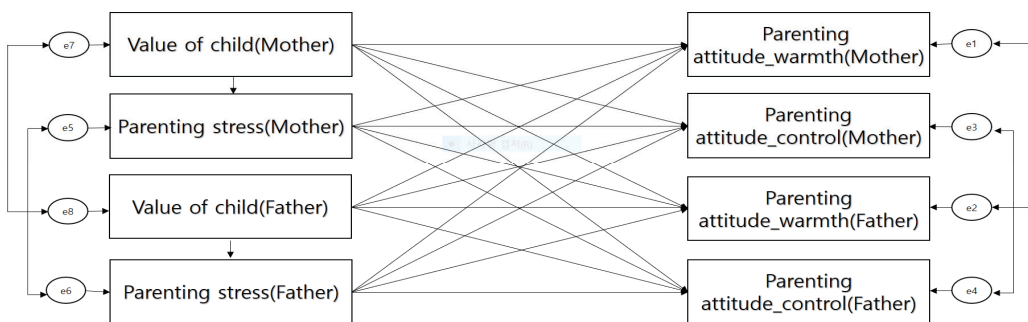


Fig. 1. The model of research

음을 의미한다. 김기현과 강희경[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6$ (어머니)과 Cronbach's  $\alpha = 0.87$ (아버지)로 나타났다.

### 2.3.4 양육태도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양육태도는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영[23]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되었으며, 온정적 양육 행동 6문항과 통제적 양육 행동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온정적 양육 행동 혹은 통제적 양육 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조복희 등[2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7$ (온정적), 0.71(통제적)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어머니의 경우 Cronbach's  $\alpha = 0.81$ (온정적), 0.76(통제적)였으며, 아버지의 경우 Cronbach's  $\alpha = 0.88$ (온정적), 0.81(통제적)로 나타났다.

## 2.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에서 운영하는 한국아동패널(<http://panel.kicce.re.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친 후 자료를 제공 받았으며, 제공된 자료는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민감한 자료들은 삭제된 상태로 제공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1040549-161104-SB-0102-01) 시행되었다. 자료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입력, 및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18.0 (SPSS Korea Data Solution Inc) 프로그램과 AMOS 18.0 (SPSS Korea Data Solution In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자녀가치, 양육 스트레스, 양육 태도의 정도와 차이는 평균, 표준편차 및 t-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의 자녀가치, 양육 스트레스, 양육 태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자녀가치와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분석을 통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석하였고, 자녀가치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는 부트스트랩을 통해 확인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어머니의 평균 연령 36.09세, 아버지의 평균 연령 38.54세이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18명(1.2%), 고등학교 졸업 456명(29.6%), 전문대학 졸업 406명 (26.3%),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662명(42.9%)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42 dyads)

Variables	Category	Mother		Father	
		n	%	n	%
Age (yr)	≤30	80	5.2	32	2.1
	31-35	613	39.8	312	20.2
	36-40	683	44.2	754	48.9
	≥41	166	10.8	444	28.8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18	1.2	21	1.4
	high school	456	29.6	411	26.6
	College	406	26.3	300	19.5
	Over bachelor's degree	662	42.9	810	52.5
Occupation	Manager or white collar job	452	29.3	733	47.5
	Service sector or sales person	118	7.7	218	14.1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5	0.3	24	1.6
	Engineer or machine fabricators	36	2.3	398	25.8
	Simple labor	24	1.6	38	2.5
	Unemployed (Include student and housewife)	895	58.0	77	5.0
	Others	12	0.8	54	3.5
	Age of Child (month)		62.61±1.31		
Sex of Child	Male	791(51.3)			
	Female	751(48.7)			
Marriage period (month)		160.75±1.31			

**Table 2.** Comparison of the level of between mother and father (N=1542 dyads)

Variables	Mother			Father			t	p
	M±SD	Skewness	Kurtosis	M±SD	Skewness	Kurtosis		
Value of child	3.63±0.55	-0.176	0.008	3.86±0.56	-0.481	0.778	-10.16	<0.001
Parenting stress	2.65±0.61	0.061	0.148	2.43±0.60	0.052	-0.063	9.73	<0.001
Parenting attitude warmth	3.68±0.53	-0.091	0.236	3.61±0.59	-0.202	0.424	2.99	<0.001
Parenting attitude control	3.50±0.50	-0.135	0.306	3.42±0.59	-0.077	0.192	3.78	<0.001

나타났고, 아버지의 경우는 중학교 졸업 이하 21명 (1.4%), 고등학교 졸업 411명(26.6%), 전문대학 졸업 300명(19.5%),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810명(52.5%)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전업 주부를 포함한 무직이 895명(58.0%)이며, 직업을 보유한 대상자는 647명 (42.0%)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경우 무직은 77명 (5.0%)이며, 직업을 보유한 대상자는 1465명(95.0%)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은 평균 62.61 개월이며, 아동의 성별이 남아인 경우가 791명(51.3%), 여아인 경우가 751명(48.7%), 부부의 평균 결혼 유지기간은 106.75개월로 나타났다[Table 1].

### 3.2 자녀가치, 양육 스트레스, 양육태도의 정도 비교

각 측정변인은 왜도의 절대값은 2를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은 4를 넘지 않아 정규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치는 아버지가 평균 3.86점으로 어머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육 스트레스, 온정적 양육 태도, 통제적 양육태도는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측정변인들은 어머니와 아버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 3.3 자녀가치, 양육 스트레스, 양육태도의 상관 관계

각 변수들은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절대값은 모두 0.8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 3.4 자녀가치와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 태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부모의 자녀가치와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NFI=0.99, CFI=0.99, TLI=0.99, RMSEA=0.04로 확인되어 전반적인 적합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설적 모형을 분석한 결과, 총 18개의 가설 중 7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부모의 자녀가치는 양육 스트레스에 자기 효과(어머니  $\beta = -0.27, p < 0.001$ ; 아버지  $\beta = -0.24, p < 0.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자녀가치(온정적 양육태도  $\beta = 0.12, p < 0.001$ ; 통제적 양육태도  $\beta = 0.17, p < 0.001$ )와 양육 스트레스(온정적 양육태도  $\beta = -0.40, p < 0.001$ ; 통제적 양육태도  $\beta = 0.15, p = 0.004$ )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자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상대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자녀가치 (온정적 양육태도  $\beta = 0.12, p < 0.001$ ; 통제적 양육태도  $\beta = 0.20, p < 0.001$ )와 양육 스트레스(온정적 양육태도  $\beta = -0.38, p < 0.001$ ; 통제적 양육태도  $\beta = 0.19, p < 0.001$ )도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자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beta = -0.18,$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N=1542 dyads)

Variables	X1	X2	X3	X4	X5	X6	X7	X8
X1: Value of child (Mother)	1							
X2: Parenting stress (Mother)	-0.30*	1						
X3: Parenting attitude_warmth (Mother)	0.23*	-0.44*	1					
X4: Parenting attitude_control (Mother)	0.16*	0.10*	0.22*	1				
X5: Value of child (Father)	0.43*	-0.11*	0.17*	0.18*	1			
X6: Parenting stress (Father)	-0.17*	0.43*	-0.31*	-0.12*	-0.24*	1		
X7: Parenting attitude_warmth (Father)	0.14*	-0.26*	0.33*	0.16*	0.22*	-0.45*	1	
X8: Parenting attitude_control (Father)	0.11*	-0.13*	0.19*	0.29*	0.19*	0.12*	0.21*	1

M=Mean, SD=Standard deviation, \*p<0.001



**Table 4.** Estimates of variables for the hypothetical model (N=1542 dyad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eta$	B	S.E	C.R	p
Value of child (Mother)	---->	Parenting stress (Mother)	-0.27	-0.30	0.02	-12.01	<0.001
Value of child (Father)	---->	Parenting stress (Father)	-0.24	-0.26	0.02	-10.69	<0.001
Value of child (Mother)	---->	Parenting attitude_warmth (Mother)	0.12	0.11	0.03	4.40	<0.001
Parenting stress (Mother)	---->		-0.40	-0.35	0.02	-15.45	<0.001
Value of child (Father)	---->		-0.12	-0.12	0.03	-0.97	0.330
Parenting stress (Father)	---->	Parenting attitude_control (Mother)	-0.12	-0.12	0.02	-0.86	0.386
Value of child (Mother)	---->		0.17	0.15	0.03	5.85	<0.001
Parenting stress (Mother)	---->		0.15	0.15	0.02	1.96	0.004
Value of child (Father)	---->	Parenting attitude_warmth (Father)	0.11	0.10	0.03	0.308	0.758
Parenting stress (Father)	---->		-0.11	-0.11	0.02	-0.45	0.652
Value of child (Mother)	---->		-0.10	-0.10	0.03	-0.17	0.750
Parenting stress (Mother)	---->	Parenting attitude_control (Father)	-0.18	-0.19	0.03	-3.42	<0.001
Value of child (Father)	---->		0.12	0.13	0.02	4.50	<0.001
Parenting stress (Father)	---->		-0.38	-0.40	0.03	-15.03	<0.001
Value of child (Mother)	---->	Parenting attitude_control (Mother)	0.14	-0.13	0.03	1.26	0.200
Parenting stress (Mother)	---->		-0.14	-0.14	0.03	-1.44	0.150
Value of child (Father)	---->		0.20	0.21	0.03	6.88	<0.001
Parenting stress (Father)	---->	Parenting attitude_control (Father)	0.19	0.19	0.03	3.28	<0.001

CR=Critical ratio, S.E=Standard error

p<0.001)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에만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녀가치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에는 상대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또한 부모의 자녀가치가 양육태도에 대한 직 간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자녀가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만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자녀가치 도 아버지의 양육태도에만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5].

#### 4. 논의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2013) 6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자녀가치, 양육 스트레스, 양육태도 간 의 관계에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 연구로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모의 자녀가치는 부모의 양육 스 트레스를 낮추는 자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12]와 영유아를 양육하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4]의 연구에서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가치가 높을수 록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의 정도는 낮아진다고 보고한 결과들과 유사하다. 부모가 자녀를 가치 있게 생 각하고 자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양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행복감 등의 정신적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때문에,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양육 스트레스의 정도는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가치로 인해 낮아 질 수 있다[11]. 또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6] 간호사들이 아 동의 건강 문제 중재시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가치를 높 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교육과 프로그램 들을 적용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Table 5.**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of the value of child on parenting attitude (N=1542 dyad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Value of child (Mother)	---->	Parenting attitude_warmth (Mother)	0.12(<0.001)	0.11(0.005)	0.23(0.003)
Value of child (Father)	---->		-0.12(0.330)	0.10(0.318)	-0.02(0.403)
Value of child (Mother)	---->		0.17(<0.001)	0.11(0.033)	0.28(0.006)
Value of child (Father)	---->	Parenting attitude_warmth (Father)	0.11(0.758)	0.10(0.628)	0.21(0.744)
Value of child (Mother)	---->		-0.10(0.750)	0.12(0.109)	0.02(0.369)
Value of child (Father)	---->		0.12(<0.001)	0.19(0.008)	0.21(0.009)
Value of child (Mother)	---->	Parenting attitude_control (Mother)	0.14(0.200)	0.11(0.178)	0.22(0.074)
Value of child (Father)	---->		0.20(<0.001)	-0.12(0.010)	0.08(0.016)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자녀가치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모의 자녀 가치와 양육 스트레스는 자기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중 부모의 자녀 가치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상대방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미비하여 본 연구 결과와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5, 24-25]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자녀 인식과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과 본 연구에서의 부모의 자녀가치와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 양육태도에 자기 효과가 있는 것과는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치가 낮고 양육 스트레스 높으면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 상실이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증가로 이어져 자녀에게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나타나게 되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으면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육 태도가 온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26]. 그러므로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는 부모의 양육 태도 조절을 위해서는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 가치와 양육 스트레스를 동시에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 부모의 자녀가치가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 태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에도 상대방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집단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부모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은 상호 대상자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상호학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다수의 변수들이 자기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낮추는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 어머니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아버지는 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을 어머니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28]. 그러므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조절과 동시에 접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사회와 임상 현장에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하는 간호사들에게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아동의 문제들을 중재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자녀가치와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인해 아동의 성장 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절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인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횡단적인 연구가 아닌 종단적인 연구들로 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조사 6차년도(2013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부모의 자녀가치, 양육 스트레스, 양육태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본 연구 결과 부모의 자녀가치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는 자기 효과가 있으며, 부모의 자녀 가치와 양육 스트레스도 부모의 양육 태도에 자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낮추는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는 개별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조절과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차별화 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간호학 임상실무의 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자녀양육에 있어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더 나은 부모의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Y. B. Son, & K. Y. Yoon. "The Effects of Fathers' Role Perceptions, Participation in Childcare Gives on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8, no. 3, pp. 105-126, 2011.
- [2] R. R. An, W. Y. Park, & I. Y. Shin. "The Effect of Father's Self-Esteem and Child Rearing Attitude on

- Children's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6, pp. 2645-2652,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6.2645>
- [3] E. Dunne, & L. Kettler.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17, pp. 333-345, 2008.  
DOI: <https://doi.org/10.1111/j.1468-2397.2007.00529.x>
- [4] R. R. Abidin. Parenting Stress Index(PSI). *Pediatric Psychology Press*. 1990.
- [5] K. Ponnet, D. Mortelmans, E. Wouters, K. Van Leeuwen, K. Bastait, & I. Pasteels.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relationship as determinants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ersonal Relationships*, vol. 20, no. 2, pp. 259-276, 2013.  
DOI: <https://doi.org/10.1111/j.1475-6811.2012.01404.x>
- [6] Y. M. Kim, & H. N. Song.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s of mothers with infant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 9, no. 2, pp. 71-88, 2015.
- [7] Y. S. Kong, & J. Y. Lim. “The effect of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maternal parenting attitude on preschooler's problem and prosocial behaviors-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ool executive function-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2, no. 2, pp. 351-376, 2012.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12.32.2.016>
- [8] Y. S. Kim, & K. J. Kwak. “The Role of Mother's Parenting Attitudes on Children's Temperament and Lif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 20, no. 1, pp. 29-49, 2013.
- [9] J. M. Lee, S. J. Kang, K. Y. Lee, & S. H. Yi. “The Effects of Parenting Practice on the Trajectories of Change in the School Adjustment of Upper Elementar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6, no. 4, pp. 91-110, 2015.  
DOI: <https://doi.org/10.5723/KJCS.2015.36.4.91>
- [10] Y. E. Kwon, & U. C. Kim. “Value of Children and Fertility”,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vol. 13, no. 1, pp. 211-226, 2004.
- [11] Y. J. Song, M. R. Lee, & H. Y. Chun. “Parenting Stress Changes in Both of Continuous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After the Birth of Their First Child : A Focus on the Effects of the Values, Knowledge and Expectations about Their Children”,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5, no. 5, pp. 15-35, 2014.  
DOI: <https://doi.org/10.5723/KJCS.2014.35.5.15>
- [12] K. H. Ok, & H. Y. Chun. “Maternal Parenting Stress of Infants from Different Income Groups : The Relative Importance of Father Involvement, the Marital Relationship, and Meanings of Parenthood”,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3, no. 1, pp. 205-221, 2011.  
DOI: <https://doi.org/10.5723/KJCS.2012.33.1.205>
- [13] M. R. Chung, S. K. Kang, & E. J. Choi. “The Effect of Parent's Family-of Origin Experience and Life Satisfaction on Value of Children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0, no. 2, pp. 193-215, 2013.
- [14] H. S. Choi, E. M. Yeon, S. J. Kwon, & Y. J. Hong. “A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Perception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 Care, Value of Childr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 7, no. 2, pp. 21-45, 2013.
- [15] M. K. Kwon.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7, no. 2, pp. 19-41, 2011.
- [16] K. S. Lee. “Exploring variables related to parental style of infant's mother”,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8, no. 3, pp. 127-145, 2011.
- [17] K. J. Han. “Parenting and nurses' role”,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vol. 3, no. 1, pp. 95-101, 2000.
- [18] E. M. Yeon, & H. S. Choi.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Features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n Infant-Mother's Job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10, no. 6, pp. 81-100, 2014.  
DOI: <https://doi.org/10.14698/jkce.2014.10.6.081>
- [19] J. L. Cook, & D. A. Kenny.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29, no. 2, pp. 101-109, 2005.  
DOI: <https://doi.org/10.1080/0165025044000405>
- [20] B. R. Bae. “Lisrel structural equation model: Interactive Lisrel”. 2005.
- [21] S. S. Lee, Y. S. Jeong, H. K. Kim, E. Y. Choi, S. K. Park, & N. Cho, et. al. “2005 national survey on dynamics of marriage and fertili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5.
- [22] K. H. Kim, & H. K. Kang.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35, no. 5, pp. 141-150, 1997.
- [23] B. H. Cho, J. S. Lee, H. S. Lee, & H. K. Kwon. “Dimensions and Assessment of Korean Parenting Styl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37, no. 10, pp. 123-133, 1999.
- [24] H. S. Choi, & E. M. Yeon. “Actor and Partner Effect of Infant-Paren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ositive Parenting Attitude”,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8, no. 6, pp. 5-30, 2014.
- [25] S. O. Hwang, & Z. O. Hwang.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the Parenting Attitudes of Infant Mot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6, no. 4, pp. 163-176, 2015.  
DOI: <https://doi.org/10.5723/KJCS.2015.36.4.163>
- [26] Y. S. Park, K. Mitsuko, Y. H. Park, & Y. M. Kim. “Parenting stress and family functioning of urban mothers with a child less than 3 years of ag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17, no. 4, pp. 349-357, 2009.
- [27] H. S. Choi, H. O. Yoon, & E. M. Yeon.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Preschooler: Focusing on Actor and Partner Effect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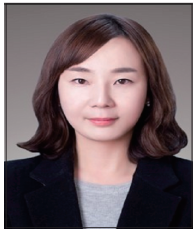
Review, vol. 20, no. 2, pp. 495-517, 2016.

- [28] K. S. Chung, J. A. Kang, & S. M. Ryu. "A validation study of the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Scale for fa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1, no. 2, pp. 361-390, 2016.  
DOI: <http://dx.doi.org/10.20437/KOAECE21-2-15>

---

김 정 민(Jung-Min Kim)

[정회원]



- 2016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과정 중)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다문화, 글로벌, 여성 및 자녀양육

---

한 정 원(Jeong-Won Han)

[정회원]



- 2011년 8월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의료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2014년 8월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대장암, 말초신경병증, 비만